

1. 향 교

1) 순천향교- 금곡동 182번지 소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27호

순천향교가 성동(城東)7리에 처음 세워진 것은 1407년(태종 7)이다. 그후 다섯 차례의 이동을 거쳐 1801년(순조 1)에 현 위치인 금곡동에 건립되었다. 먼저 그동안의 변동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407년 성 동편에 초창한 후 연대불명의 어느 해에 성서(城西)3리에 옮겨 세웠고, 1610년(광해군 2)에 성서 구지(舊址)의 북편에, 그리고 1780년(정조 4)에 성남10리 흥내동에 세웠다가 1801년에 마침내 현재의 금곡동에 다시 옮겨 세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읍성 서편에 자리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자주 옮겨 세웠던 주원인은 옥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48년(인조 26) 부사 김종일(金宗一)이 향교의 이건을 요청하면서 “서변의 물에 할켜 담장이 헐리고 성전(聖殿)도 그 태반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기둥이 나무인지라 조만간에 무너질 것 같다.”¹⁾고 한 것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조 때 흥내동으로 옮겨갈 때도 역시 침수로 인한 사태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도 순천향교는 남원향교와 함께 전라좌도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향교로 발전하였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강한 유림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가령 지방관이 향유(鄉儒)의 협력에 의해 향리의 부정을 막고 행정상의 난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교의 유림이 수군절도사와 같은 고위관리를 상대로 하여 정면대결도 주저하지 않아 결국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예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향교 중수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는 데 수사가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실력으로 대결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은 사례까지도 있었다.²⁾ 특히 조선시대 순천지역의 저성(著姓)으로 알려진 옥천 조씨, 경주 정씨, 제주 양씨, 목천 장씨, 양천 허씨, 광산 이씨, 양성 이씨, 상주 박씨 7성(姓) 8문(門)의 유림세력에게 순천의 향권(鄉權)이 좌우되고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 예로 1801년 이후 순천향교 교임(校任)을 맡은 인사들을 성씨별로 조사해본 어떤 통계에 따르면, 1801~1890년 사이에 위의 7성 8문 출신인사들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조씨와 정씨 양대 문중에서 전체의 1/3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해준다.³⁾

한편 순천향교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양사재(養士齋)가 이 지역에 일찍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순천의 양사재가 현재의 전남 동부지역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기까지는 부사 황익재(黃翼再 : 1716~1718년 재임)의 공이 컸다. 그는 1718년(숙종 44) 향림사 입구에 양사재를 창설, 멀리 태인에서 선생을 초빙하고 양사재 운영에 필요한 전답까지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방교육기관으로 육성했던 것이다. 그가 이임된 후 양사재는 폐지되었으나, 정조 때 향교가 흥내동으로 옮겨간 뒤 향중사림이 구교지(舊校址)에 양사재를 복설(復設)하였다. 그후 양사재는 사실상 향교조직 속에 포함되어 순천향교와 더불어 성쇠를 같이하면서 일제 초기까지 그 기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1) 『學校騰錄』, 인조 26년 7월 18일.

2) 『향남악부』, 「尊聖廟」.

3) 정승모, 「서원·사우 및 향교조직과 지역사회체계」上, 『태동고전연구』 제3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87, 186쪽.

